지역 물가상승률 1%대 불구…"먹거리 부담 여전하네"

호남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광주 1.5%·전남 1.8%↑ 안정세 대비 외식·가공식품 물가 3.1~3.7% 올라 재료비·임대료·인건비 등 상승 영향

지난달 광주·전남 소비자물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먹거리 부담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체감 물가 부담으로 작용했던 석유류, 과실·채소 가격 하락세에 비해 외식·가공식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6(기준=2020년 100)으로 전년동월대비 1.5%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0월(1.3%)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로 광주 물가는 3개월 연속 1%대를 기록중이다.

그간 소비자물가 상승 주범인 신선식품지수가 전년비 4.2%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구체적으로 이상기후에 비쌌던 신선채소는 전월(4월) 대비 11.4% 감소했다. 신설과실도 지난달과 전년동월대비 각각 7.8%·12.4%씩 내렸다.

지출목적별로도 석유류와 연관있는 교통 부문만 유일하게 1.9% 하락했다. 휘발유(-4.1%), 수입승용차(-5.3%) 등 영향에서다. 다만 개인서비스 물가는 0.96%p 끌어올리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외식물가지수는 125.24로 무려 3.4% 올랐다. 가공식품도 3.2% 상승하는 등 먹거리 부담은 다소 높아졌다. 구체적인 상승 품목은 △생선회 외식(11.2%) △햄버거(8.9%) △도시락(8.4%) △해장국(7.7%) △오징어채(65.8%) △초콜릿(19.6%) △고추장(17.6%) △비스킷(17.1%) 등이다.

같은기간 전남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비 1.8% 상승한 117.16이다. 올해 들어 이어진 2%대 상승률은 5개월 만에 멈추게 됐다.

전남 역시 신선 과실에서 사과(-14.3%), 참외(-25.3%) 등 총 10.3% 하락했고 채소는 5.5% 내렸다. 휘발유(-3.8%)와 경유(-3.4%) 등 석유류 물가도 하향세를 보였다.

외식물가지수는 3.1% 오른 123.30,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3.7% 상승한 123.78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햄버거(8.9%) △해장국(8.1%) △구내식당비(6.3%) △오징어채(36.3%) △시리얼(24.3%) △김치(17.2%) △초콜릿(15.3%) 등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호남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외식물가지수와 가공식품 물가지수가 원·부자재 등 재료비·임대료·인건비·환율 등의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승현 기자

보해양조 '보해 명주도감 가시오가피' 출시

11가지 약용식물 원료 12년 숙성주

주류 전문기업 보해양조가 중장년층 고객들이 소주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면서도 최근 주목받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주류를 개발했다.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KVC)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보해 명주도감 가시오가피'를 출시한 것.

이 제품은 가시오가피를 비롯해 오미자, 홍삼, 복분자, 청문동, 백문동, 대추, 지황, 숙지황, 지구자, 백봉령 등 총 11가지 약용식물을 원료로 사용했다. 이를 주정과 함께 12년간 숙성해 깊고 풍부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약주 특유의 텁텁한 맛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위해 산미가 있는 과실주 타입으로 선보이며 귀한 재료들을 소개하는 '도감' 콘셉트의 라벨 디자인을 적용해 제품 특성을 한눈에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KVC는 1979년 사단법인 중소상인연쇄점협회로 출발해 현재 75개 회원사, 1만 8,000여개의 소매점을 보유한 국내 가정용 주류 도매유통협동조합이다.

편의점보다 싸고, 마트보다 가까운 로컬마트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주류를 유통하고 있어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주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보해양조와 협업해 대형 유통사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KVC 5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이번 제품을 한정 생산하게 됐다"며 "중장년층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주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해 명주도감 기시오가피'는 6월부터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에 거점을 둔 KVC회원사를 중심으로 유통을 시작하며 전국 로컬 마트로 판매를 점차 확장할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코스피 2.66% 올라 2,770선 마감…코스닥도↑

대통령 선거 후 첫 거래일인 4일 코스피가 3% 가까이 급등하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71.87포인트(2.66%) 오른 2,770.84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 대비 38.95포인트(1.44%) 오른 2,737.92로 출발해 점차 오름폭을 확대하며 단숨에 2,670대까지 올라섰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92포인트(1.34%) 오른 750.21로 마쳤다.

이연수 기자

광주은행은 최근 지역 내 저소득가정 대학생과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된 '희망이 꽃피는 봉사단'을 대상으로 이정욱 종이비행기 국가대표이자 동기부여 강사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봉사단' 대상 특강

'도전과 열정, 회복의 경험' 주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지역 내 저소득가정 대학생과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된 '희망이 꽃피는 봉사단'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강연에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이자 동기부여 강사로 활동 중인 이정욱 강사를 초청해 '도전과 열정, 회복의 경험'을 주제로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으며, 청년들은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광주은행 임직원들도 멘토로 참여해 청년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누고 실질적인 조언과 응원을 전하며 따뜻한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행사에 참가한 한 봉사단원은 "오늘 강연을 통해 내가 가진 가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고, 진심 어린 응원과 멘토링이 큰 힘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희망이 꽃피는 봉사단'은 광주은행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청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저소득가정 대학생과 자립준비청년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광주은행은 장학금 지원 및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고 있다.

이연수 기자